

연중 제22주일

기도서 424면 (B해)
제1독서 : 신명 4, 1-2, 6-8
제2독서 : 야고 1, 17-18, 21b
22-27
복 음 : 마르 7, 1-8, 14-15, 21-23

숨 정 이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마르코 7, 14-15).

강론

성모성녀를 보내며

문 선구 신부 / 수류성당

최근 교황요한 바오로 II 세계서는 “세속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위기가 직면하고 있는 게, 이는 ‘동정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저하’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성모님으로부터 떠날 때는 조만간 성자로부터 멀어지고 만다”라고 말씀하셨다.

“성모마리아는 삼위일체신 하느님과 긴밀히 일치되어 계신다.”

먼저 마리아는 성부의 “완전한 딸”이다. 그것은 마리아께서 성부의 가장 완전하고 유순한 종이기 때문이다. 즉 “이 몸은 주님이 좋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순명으로써 성부의 의지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리아는 “성자의 모친” 이시다.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돌보아 주며 애지중지 길러 주신 어머니 이시다. 예수께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이시기에 “천주의 모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의 정배” 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의 모친이 되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정배”가 되셨으며 또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리스도가 그분의 감실에서와 같이 마리아의 몸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기에 성모께 대한 신심이 깊으면 깊을 수록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도 비례해서 증가된다.

교회 안의 역대 성인 성녀들 역시 성모께 대한 깊은 신심의 소유자였음이 이를 증거한다.

그러면 성모신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모님의 덕행을 본받는 것이다. 즉 그분의 겸손, 사랑, 가난, 정절, 믿음, 기도, 고통과 희생, 인내와 끈기, 자비, 그리고 침묵 등을 본받는 것이다. 성모님은 그분의 덕행으로 완덕의 길로 나가셨으며 가장 ‘완전한 인간’ 이 되셨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성모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덕행을 본받게 되면 완덕의 길로 나갈 수 있으며 하느님과 긴밀히 일치될 수 있다.

소리

악취는 깨끗이 치워야 가신다.

악취는 아무리 감춰도 냄새가 난다. 근원적으로 치우지 않는 오물은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다. 국회 5공비리도 사단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지방청와대로 불리우는 전남 도지사 공판 대통령 전용시설 집기 은폐사건은 분노의 차원을 넘어선 어처구니 없는 일로 허탈감마저 느끼게 한다. “은폐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직원들이 지방 청와대가 호화판이라는 보도가 두려워 치운 것 같다” 속 보이는 전남지사의 해괴한 변명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하긴 후지통 1개에 십수만 원짜리, 신문 꽃이 1개가 십수만 원짜리 였더니 우리네 서민들로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왜 자꾸 감추려고만 하는가! 결국 현 정권 역시 같은 패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정부는 제5공화국의 비리 조사에 협조하는가? 방해하는가? 정부는 이번 국회의 제5공 비리 조사를 위한 「일해, 자금 출처」 전세 재산목록을 포함한 38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숨김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출할 서류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 주무장관의 소명에 의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증언 감정법을 숙선해서 지켜야 한다. 진정 이토록 자꾸만 감추고 숨길려고만 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들의 비리조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과거의 찌꺼기를 청산, 새로운 출발에 전력하겠다”는 현 정권의 공약은 모두가 새빨간 거짓임을 국민들 가슴 가슴 마다에 확신시켜 주는 일 이외의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진실되게 밝혀라! 5.5 공화국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거든!

악취는 근원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가시지 않음을 왜 모르는가!

숨정이 산책



빨리공개하십시오!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

세계 성체대회는 전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 대표들과 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최후만찬의 실현인 가톨릭의 거룩한 제사, 즉 '미사'(성찬례·성체성사)의 참뜻을 새기고 그 은총을 음미하는 축제이다.

세계 성체대회는 '가능한 한 4년에 한번' 교황이 선정하는 도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는 대회가 생긴지 10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대회장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이고 준비위원장은 김수환 추기경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는 세계의 불화와 불일치를 국토분단의 비극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국에서, 온 인류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베푼 성찬의 뜻을 함께 새기고 드러내기 위해 선정되었다.

세계 성체대회에는 교황이 직접 참석하거나 교황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성체대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과거 교회의 역할은 성체를 축성하고 보존하고 공경해야 하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찬의 삶을 세상에 구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체는 사람들과 멀리에 있는 성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네 삶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성스럽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예수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듯이 우리는 성체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성체는 참으로 나와 이웃을 구하는 '생명의 빵'이 된다. 이제 성체는 감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나의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성서와 함께

17. 이스라엘의 사회구조(C) : 부족

부족은 한분의 공동된 조상을 모신 씨족들간의 집합체이다. 유목생활에서 부족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만 크면 되었다. 부족이 너무 커지면 사막에서 장소이동에도 불편했고 우물이나 오아시스가 제공하는 한정된 양의 물을 나누어 먹기에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비대해진 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 부족을 형성하기 위해 옮겨가는 씨족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생리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성서의 어떤 부족도 모든 구성원들이 순수하게 한분의 공동된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로써 한 조상에 연결된다는 부족내의 강한 연대의식이다.

서로 다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족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이용된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야기는 다윗 시대에 와서 통일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유래를 설명한다.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다소 불편한 관계는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는다.

씨족사회에서 벌써 노출되었던 강한 연대의식은 부족제도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부족사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의 잘못은 전체 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간이 정해진 법을 깨뜨리고 예리고 시를 약탈했을 때,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호통을 치신다. (여호 7, 1.11).

조상들의 자잘못은 그 후손들에게 파급된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대에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출애 20,5-6).

이 연대책임의식이 바로 바오로의 구속사상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죽음에 부처졌다. 그러나 예수 역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고 우리의 육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부족의 일원이요, 인류의 일원이 되었다.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두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I고린전 15,22).

부족제도가 언제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실제로 고수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가나안 정착 이후의 12부족의 구분은 부족사당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부족전통을 보존하려했던 전통주의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전통의 잔재가 신약성서에서도 엿보인다. (루가 2,36; 로마 11,1). 그런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정착 이후 부족의 개념은 점차 사라져가고 민족의 개념이 선명하게 자리잡아 갔다는 것이다. 농부들은 목축인들보다 훨씬 개인주의에 젖어 있었고 아무도 한 농부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농작물 수확을 망쳐 놓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 중 정 육 점

식욕도산매(주분배달)
쇠고기, 삼겹살, 동심, 생닭
장 정숙 (테레사)
남부시장 채소약장 앞
☎ 사) 84-1897
자) 82-7385

천 사 의 선 물

가방, 약세사리, 완제리, 동양화
한 베로니카 (명회)
송 대건 안드레아 (희영)
전주시 효자동성당 앞
☎ 85-4641

특 수 방 수

페인트와 같이 칠하여 방수하는 선진 방수제
제품 : 적벽돌면, 타일면, 몰탈면, 옥상, 지하실용
(전품목 수입제품) 적벽돌타일, 백화제거제
판매시공·일반건축 전문
다림교역상사·호남지사 동양종합공사
오 요한(준영) ☎ 72-5475, 7760

교 구 소 식

※ **축! 직 수어식**: 8월28일 오전11시 장소-광주 가톨릭대학 성당
 독서직: 김봉술(아우구스띠노) - 상관천주교회
 시종직: 김교동(베드로) - 전동천주교회
 박대룡(사도요한) - 남원천주교회
 김희태(사도요한) - 중앙천주교회
 김진철(빈첸시오) - 남원천주교회

1. 본당 업무지침서 발행에 따른 각본당 사무장, 사무원 연수회: 9월7일 오전10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 - 5,000원(1인당)
2. 초·중·고 교리 경시대회: 일시-9월11일(일) 장소-각 본당, 시험범 위-하계 교리교재 '어린양·빛따라' 문의처-교구청 교육국(85-0041~3)
3. 젊음을 위한 피정: 일시-9월17일~18일 장소-농협연수원 대상-모든 신자 젊은이 회비1,000원 접수-교육국 후원-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4. 본당 올드레야 간사회의: 9월3일(토) 오후3시 장소-가톨릭 센터
5. 마리아의 사제운동 디라방 모임: 일시-8월28일(오후3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참석대상-수도자, 평신도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음 초청장사-문선구신 부님 준비물-미사도구, 묵주, 성가책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책
6.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일시-9월1일(목) 10시-16시 장소-덕진천주교회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지참요.
7. 성모기사회: 성인-9월4일(토) 오전10시
 청년-9월4일(토) 오후6시 미사후
8. 한국가톨릭 노동청년회 30주년 기념미사 및 행사: 일시-9월4일(일) 장소-명 동성당 기념미사-오전9시 기념행사-오후1시~6시.

※ **축! 영명 성 아우구스띠노(28일)**: 김영일, 한정현, 이동신부님 축하합니다.

요십이 (786) 김병오



두려움 — 세계 성화대회를 앞두고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할 때면 저절로 이런 물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정신없이 뒤따라 가다보면 내가 어느만치서 뭘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참 빨리 변화합니다. 변화가 심하다보니 앞서가는 사람과 뒤쳐가는 사람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빠른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 온 것은 사람 사이의 경쟁과 단절이며, 나눌 줄 모르는 이기심의 조장이고 그로 인한 사회의 혼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중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했을 때 세상에는 혼란이 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막히지 않고 흘러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은 자연생명이고 사랑이며 마음을 타고 물과 같이 흐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만 하면 썩어버리거나 파괴적인 힘으로 변합니다.

흐르는 정은 사람과 사람을 맺어 줍니다. 사람들을 서로 어울리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합니다. 정을 주고 받고, 그렇게 막힘없이 흐를 때 우리 삶은 아름다운 생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은 하느님과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사는 삶을 즐기는 밥상이며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걱정하고 도와주면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흐르고 확산되면 이 땅에는 정과 피가 막힘없이 통하게 되고 갈라진 우리 겨레는 다시 하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마음먹고 행하면 길은 생기게 마련이라고 굳게 믿읍시다.

□ 1분 명상

피조물이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이루어 보아 우리는 그들을 만드신 분을 알아 지릴 수 있다.

- 지서 13.5

명동피부과의원

여직원구함

(창동외 거주한 교우분 중 여성 졸업자)

●숙식제공●

신 세시리아

연락처: 황동 미원사로

☎ 52-4235

서울직영 전주직매장

하리방등가구전문

박 정근 (오 씨)

허 금순 (마리아)

금양동 분수대원 영진빌딩 1층

☎ 5-5365

전북 의료보험조합지정

김안과의원

부설: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 렌즈

원장: 김호열
 전은주 (베로니카)

전주 코이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 85-3020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군신경외과의원

부설: 물리치료실

원장 신일군 (아오스님)
 윤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88 자 8-8417
 관동로 전주백화점→다가교 중간

나비커텐

선경커텐, 스완카페트, 브라인드
 홀딩도어, 홉랫션(침대카바
 전문) 및 기타

정길 (알베르도)

김강 (엘리사벳)

전주시 중앙동2가 53-5(라자거리옆)

☎ 82-2226, 86-5611

현대미용학원

김금순 (베레사)

학생 수시모집

피부관리사 양성

전주중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 86-2211

☐북전주시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의옥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김희태학사 시종직수여: 28일, 축하합니다.
2. 공소미사: 오늘, 오후4시30분
3. 중·고 교리반 개강: 다음주일(4일) 학생미사후
4. 모임:
재속형제회-오늘, 오후2시
청년연합회-29일(월) 오후7시30분
성심부녀회-2일(금) 어머니 미사후
사 목 회-다음주일(4일) 공식미사후
자 모 회-다음주일(4일) 3시 미사후
5. 재대개수공사에 도움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봉헌금: 1,265,410원 □교무금: 893,500원

*금압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수녀원 76-0961 사목회장 소완영

- ※ 인사발령: 에스콜라스티카수녀님(인천주원) 유바스칼수녀님(금압)
1. 금주는 애령주일: 선행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 사목회·금오회: 차주공식미사후 3. 30일 오후7시(대건회관)
 4. 성시간: 9월1일 저녁미사후 5. 푸르실로 올드레아: 9월1일 저녁미사후
 6. 전신자녀시대회: 일시-9월10일 오후출발(1박2일) 장소-윤암회비10,000원 식사식-금상50,000원상품 은상30,000원상품 동상10,000원상품
 7. 한국정신과학세미나: 9월4일 오후2시 참가비1,000원
 8. 금주전례: 해설-나인구 봉헌-박진수부부
복사-강남수 이회찬 기도-46반, 47반, 48반
 9. 차주전례: 해설-신동철 봉헌-설동규부부
복사-윤기환 송호관 기도-49반, 50반, 51반
 10. 미사안내: 성실하신 동정녀Pr 차주-평화의 모후Pr
□지난주봉헌금: 새벽113,550원(144명) 공식372,500원(458명) 저녁177,920원(209명) 합계700,450원 □교무금: 1,013,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철
수·유 72-1222

1. 예언자의 모후 꼬미씨울 회의: 오늘 오후2시 성당에서
2. 8월 구역장·반장모임: 31일(수) 오후2시
3. 8월 전례분과 모임: 31일(수) 오후8시
4. 예비자반 개강: 화요일-30일(화) 개강 목요일-9월1일(목) 개강
5. 푸른군대 1일 피정: 9월1일(목) 오전10시부터
6. 순교자 성월 본당 성지순례: 일시-9월11일 장소-미리내·솔의 회비5,000원 9월4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7. 각팀별 성지순례를 접수합니다: 9월~10월 매주 토요일, 교구내 성지순례 회비 1인당 1,000원
8. 진복회: 공식미사후(사목회의실)
9. 금주전례: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선교분과
기도-덕진20반
10. 금주 본당청소: 상지의 옥좌Pr-9월3일 오후1시30분
□지난주봉헌금: 694,070원 □교무금: 879,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협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1. 본당 교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출입시 교적을 확인하세요.
2. 성시간: 매월 첫금요일(9월2일) 오후9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3.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청년회, 제대회(9월2일 오후8시) 애덕회 차주 공식미사후-애령회.
4. 나들잔치: 팔복3구역(31일)
5. 금주청소: 은총의 어머니, 차주-하늘의 문
6.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안기섭 ②김진례
차주전례: 해설-김택천 독서①조용민 ②김진순
□지난주봉헌금: 292,780원 □교무금: 321,000원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사목회장 박병열

- ※ 벽돌 헌금 함: 우리들의 정성어린 벽돌 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 ※ 젓갈류 판매: 성전 신축을 위한 각종 젓갈류를 판매 합니다.
1. 오늘의 모임: 방주회(공식미사후) 차주모임-사목회 상임위원회 정모회(9월4일) 공식미사후
 2. 순교자 성월 본당 성지순례: 일시-9월11일 장소-미리내, 나바위 회비5,000원 9월4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당일미사: 오전6시, 오후8시
 3. 9월반 예비자 모집: 9월6일(화요일) 오전10시, 오후8시30분
 4. 주일학교 개강: 9월4일
금주본당청소 안내: 애덕의 모후 차주-사랑하올 모후
금주미사 안내: 사랑하올 모후, 선교, 차주-인자하신 어머니, 전례
금주미사 전례: 해설-오찬석 독서①윤홍진 ②양영아 차주: 해설-감남곤 독서①박 훈 ②김옥희
□지난주 봉헌금: 239,360원 □교무금: 128,5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사목회장 소병을

- ※ 축 영세식: 오늘 공식미사중
1. 오늘모임: 대건회, 요셉회-공식미사후
청년회-저녁8시50분(지하강당)
 2. 성심부녀회: 2일 오전11시
 3. 병자봉성체: 31일(수) 대상자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오늘은 나눔의 날
 5. 금주본당청소: 송천6구역 3일 오전11시
 6. 금주전례: 해설-김광자 독서·기도-사랑하올 모친Pr
차주전례: 해설-박세영 독서·기도-바다의 별Pr
□지난주봉헌금: 322,580원 □교무금: 323,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오늘: 요한회 초등부 주일학교 개강
 2. 1일(목): 성시간(오후7시).
 3. 3일(토): 부녀회(오전10시) 구역장회의(오전11시)
 4. 다음주: 성모회, 푸른숲(공식미사후)
 5. 예비자 교리 9월반 시작: 주일반 4일(일) 오전9시 목요일반 8일(목) 오후8시
 6. 금주본당청소: 화-순교자의 모후 토-상아보탑
 7. 미사안내: 셋별의 모후 차월-증거자의 모후
 8. 미사해설: 입장수 차월-점이용
 9. 금주전례: 독서·기도-김경수 서영숙
봉헌·기도-이종업 유용자
차주전례: 독서·기도-김진설 김영희
봉헌·기도-황덕주 김용자
□지난주봉헌금: 386,940원 □교무금: 858,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1. 오늘의 모임: 꾸리아 율례회의 28일 오후2시 톨슨피아노 학원
2. 구역장님 모임: 1일(목) 어머니 미사후
3. 구역모임에 참석 합니다: 세대당 1인은 참석하셔야 합니다.
4. 미사 수건을 쓰세요: 4일부터
5. 신축금에 관심을: 신입하신 분은 남부에 미신입 세대는 신일에
6. 파란 마음 주일학교 개학 오늘부터. 부모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7. 본당 베소라 성서 모임 개강: 9월2일 오전10시
8. 다음주 모임: 사목회 율례회의 4일 공식미사후 사목회 임원 및 신축위원은 꼭 참석 바랍니다.
9. 9월은 순교자 성월 입니다.
□지난주봉헌금: 661,530원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 320,540원 감사합니다.